

나혜석·백남준 등 한국미술 거장 만난다

정읍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 개막 회화·한국화·미디어 작품 총망라...명화 그리기 체험도

정읍시가 '2019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명화로 시민과 소통한다.

정읍시는 2019년 정읍 방문의 해를 여는 특별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명화전' <포스터>을 정읍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조선이 서양미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00년 이후부터 100년의 시간을 망라한 전시로,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한국근현대미술의 대표작가의 작품 7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모두 근현대를 상징하는 명품들이다. 근대역사화기인 나

혜석부터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까지 다양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회화, 한국화, 조각, 입체, 미디어 작품이 총망라된 이번 전시는 '교과서 속 우리 미술전', '한국화를 넘어 한국화로', '새로운 표현의 모색' 세 개의 전시 키워드로 구성됐다.

전시회는 입장료 무료이며, 오는 4월 20일까지 3달 간(매주 월요일 휴관, 설날 당일 휴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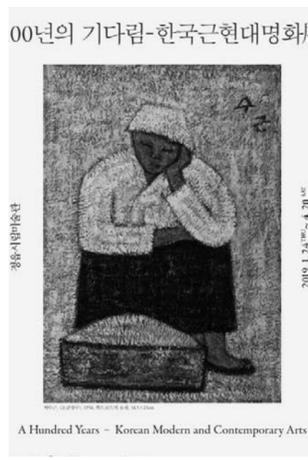
정읍시립미술관은 기획전과 함께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체험교프로그래밍으로 1층 뮤지엄교육실과 2층 라운지에서

'내가 만드는 명화와 함께 만드는 명화'를 운영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19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에 정읍시립미술관 특별기획 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근현대작가 명화'전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기획전시를 통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예술적 감성을 함께 공감하고 예술적 교감을 이루며 관람객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cultur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서 설 민속놀이 한마당

연휴기간 윷놀이·떡메치기 체험행사에 인절미·전통차 제공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사진)은 민족 명절인 설날을 맞아 연휴 기간(2월 2~6일)에 민속놀이 한마당 큰잔치를 연다.

연휴에 한복을 입고 박물관과 절세 조망대를 찾으면 무료로 입장해 다양한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설날인 5일에는 투호, 윷놀이,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와 함께 인절미와 전통차도 제공한다.

고향을 찾을 귀성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공연행사도 마련했다.

박물관 3층에서는 '다시 군산, 근대산업의 거인들'을 주제로 군산경제인 기획전을 연다.

4일과 5일에는 타악공화국 '흙소리 사물놀이'를 선보인다. 1층 시민열린갤러리에서는 송월당 스님의 '붓꽃, 나를 놓아주는 지혜' 전시회를 진행한다.

박물관 옆 장미갤러리에서는 고(故) 허반영 화백의 작품전 '바람을 가르는 사계'를 개최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취업 면접시 입을 옷 빌려드립니다"

전주시 '청년 꿈꿀 옷장' 사업 전개

대여업체 공모 2월 중 선정

전주시는 올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지원사업인 '청년 꿈꿀 옷장' 사업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가 구직활동 시 필요한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대여 전문업체가 청년들에게 이용자별 체형에 적합한 정장을 수선해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정장 대여사업을 하는 전주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오는 2월 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단 상근 직원이 없는 업체나 단순 민간 단체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rk)를 참고하면 되며, 전주시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kry@korea.kr)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 방문과 자체 선정심사를 거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참여업체에는 정장 대여 건수에 따라 회당 이용료가 지급된다.

이에 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선정된 업체와 함께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발급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기초수급자 등 1인당 8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재단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약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만 841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자는 6세(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 계층이며, 올해는 기존보다 1만원이 늘어나 연간 8만원(1인당)을 지급한다.

최근 3년간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2016년 5만원, 2017년 6만원, 2018년 7만원으로 매년 1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카드 발급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혜택과 참여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공연·영화·전시·국내 4대 스포츠 경기 관람(축구·농구·야구·배구)이 가능하다.

또 여행, 숙박, 문화체험, 고속·시외버스, 철도, 약기점, 각종 체육시설, 체육용품 판매점을 비롯해 스포츠 강좌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문화관광팀(063-230-7463)과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장흥군, 안중근 의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3·1운동 100주년 맞아 위패 봉안 '해동사' 인근 역사체험 공간 조성

장흥군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흥군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봉안(사진)한 '해동사' 인근에 70억원을 들여 안 의사의 애국정신이 깃든 역사체험 교육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동사 인근에는 안중근 의사 체험교육관과 애국탑방로,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한다.

메모리얼 파크에는 안 의사뿐만 아니라 안창호, 윤동주, 김구 등 애국지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역사교육 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전국단위 청소년 및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해동사는 1955년 장흥에 살던 유림 안흥천(죽산 안씨)씨가 순흥 안씨인 안중근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 죽산 안씨 문중에서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안중근 의사의 1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보성군, 미세먼지 제거 효과 '녹차 마시기 운동'

보성군이 미세먼지 속에 카드뮴, 납, 비소 같은 발암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녹차를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군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녹차 마시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보성군은 최근 자료를 내고 "2008년 하버드 의대 뷰코브스키박사 등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녹차의 카테킨과 테아닌을 3개월간 섭취하면 호흡기계 질병과 독감이 30% 이상 감소하고 중금속과 납은 50~70%, 카드뮴은 40% 이상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녹차는 항암·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중금속 배출 기능이 탁월한 탄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탄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 축적된 수은

과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등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체내 중금속과 결합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금속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등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인다.

군은 학교나 경로당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티백 제품이 아닌 잎차를 우려 녹차를 제공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의 성분인 미세먼지에 함유된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녹차 마시기 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녹차는 찻잔으로 하루에 4잔에서 20잔 이하로 마시면 효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창군, 상습 침수피해 구암천 일대 98억 투입 정비

장마철 상습 침수에 피해가 컸던 고창군 무장면 봉촌마을을 구암천 일대가 새롭게 정비된다.

고창군은 봉촌마을을 구암천 상류 일대(만화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하천 폭 확장 등으로 국비 49억원, 도비20억원, 군비28억원 등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시설설계용역을 발주해 마을 설

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사전설계검토와 전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9월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구암천 상류 지역 주변 가옥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안전한 고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덕남동 임야, 여수 땅,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300평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장/단기 투자대비 큰수익 가능
- 매매 - 75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전남 여수시 봉강동343-1번지외 2필지, 대지 431평 (343-1-260평, 343-2-141평, 344-30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90%, 준주거지역-10%,
- 대출-18억7500만원, 시세/감정가-약 35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30억

문의. 010-6834-7400